현대미술로 옮긴 '천 년 전'의 신라


김승영 作, 슬픔

'신라를 다시 본다' 특별전

국립경주박물관 12월 14일~2019년 3월 3일
현대미술작가 6인이 바라본 천년 신라
사진, 설치미술 등 다양한 장르로 표현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천 년 전의 신라를 현대미술로 재해석한 전시가 열린다. 국립경주박물관(관장 민병찬)은 12월 14일부터 2019년 3월 3일까지 특별전 '신라를 다시 본다'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여섯 명의 현대미술작가가 자신만의 시각으로 신라와 신라문화를 재해석한 작품 12점을 선보이는 전시다.

신라는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등에 기록과 구전된 이야기가 가득한 나라이다. 그리고 그 이야기에 담겨 있는 유적과 유물로 우리는 천 년 전 신라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라의 설화와 그 문화유산은 과거에 만들어진 신라의 이미지다. 현대작가들이 만들어낸 신라의 이미지는 설화의 나라에 더욱 풍성한 상상력을 불어넣는다. 이번에 전시되는 작품들은 사진, 설치미술, 수묵화 등 현대미술작가 6인이 현재의 시점에서 천 년 전의 신라를 바라보고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창작한 작품들로서 '현대미술'로 그린 천 년 전의 '천 년'이다.

▲'신라는 달의 나라이다'에서는 사진작가 이흥재의 연작 사진 '신라, 그 푸른 밤 - 멀고도 가까운'이 소개된다. 신라시대의 고분, 무덤 앞에 자리한 감나무, 배경이 되는 하늘이 주요 소재다. 이흥재 작가가 신라의 달밤에 빠진 것은 우연히 황남대총 연못에 비친 푸른 하늘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과 저녁 어스름이 교차하는 짧은 순간, 붉은 하늘이 청색으로 바뀔 때의 푸른색(twilight blue)에 주목했다.

▲'고요한 부처의 마음에도 다양한 감정들이 있다'에서는 설치미술작가 김승영의 작품을 소개한다. 김승영 작가가 매료된 문화유산은 반가사유상(국보 제83호)이다. 하지만 그는 고대의 걸작 안에서 가장 원천적인 감정인 '슬픔'을 보았다. 김 작가는 사유하는 보살상이 슬픈 표정을 짓고 눈을 가리는 모습으로 번안했다. 관객이 의문을 갖는 순간 작품과 소통하고 반가사유상은 새롭게 인식된다.

▲'먹은 신라의 정신, 동양의 정신이다'에서는 수묵화가 박대성의 작품을 소개한다. 작가는 작가 특유의 장기인 수묵으로 분황사 모전석탑과 불국사 다보탑을 그렸다. 특히 '고분(古芬), 옛 향기'는 선덕여왕이 세운 분황사탑에 주목한다. 당 태종이 보낸 그림에서 나비 없는 모란꽃을 보고 향기가 없을 것임을 추론해낸 지혜로운 선덕여왕은 향기 나는 여왕의 탑, 분황사를 세웠을 것이라고 작가는 생각한다.

▲'선덕여왕을 위한 진혼의식을 행하다'에서는 정종미 작가의 작품을 소개한다. 선덕여왕의 실제 얼굴을 알 수 없지만, 작가는 남산 불곡의 감실 부처가 선덕여왕의 모습이라는 지역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여왕의 얼굴을 창조해냈다. 또한 전통장례에서 상여 장식에 사용한 종이꽃(지화紙花)으로 화폭 양쪽에 '慶祝경축' 글씨를 장식하여 선덕여왕을 위한 작가의 진혼 의식을 보여준다.

▲'신라의 소리로 전 세계에 자비를 전하다'에서는 임옥상 작가의 작품을 소개한다. '월인천강, 신라의 소리'에서 임 작가가 집중한 것은 신라의 소리, 성덕대왕신종의 종소리다. "범종 소리는 부처의 말씀이다"고 말하는 임 작가는 '하나의 달이 세상 모든 물과 강에 비춰지는 것(月印千江)'처럼 부처의 소리가 전 세계로 퍼져 나가는 모습을 미디어 아트로 구현했다.

▲'디지털의 눈으로 신라를 본다'에서는 미디어 아티스트 이이남의 작품을 소개한다. 우리 눈에 보이는 신라 유물은 가시광선을 통해 본 유물의 색과 형상이다. 이 작가는 '천년의 빛'에서 디지털 영상이 해석한 반가사유상, 석굴암 본존불상 그리고 금관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유물의 색과 형태를 다르게 보여준다. 이 작가는 우리가 익히 보아온 신라를 디지털 기호로 뭉개고 요동치게 한다.

국립경주박물관은 이와 함께 참여 작품의 개성을 볼 수 있는 '전시 소개 영상'과 작가들의 작품 제작 의도와 작품 뒷이야기 등을 생생한 인터뷰로 만날 수 있는 '작가 인터뷰 영상'도 마련했다. 전시 기간 중 전시 작품을 설명하는 큐레이터와의 대화(격주 수요일 오후 2시)도 진행한다.

국립경주박물관은 "이번 전시가 문화유산을 재해석하고 예술가들에게 창작의 동기를 부여하는 시간과 공간이 되기를 바라고, 경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이번 전시에서 보는 즐거움과 듣는 기쁨을 넘어 설화의 나라 신라를 새롭게 상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시의 취지를 밝혔다.

안성 도피안사 동지법회 및 불교음악 토크쇼
'보현행원송' 대담… 12월 22일(동지) 오전 10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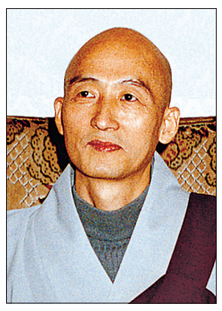
안성 도피안사(주지 송암)는 동지를 맞아 12월 22일 오전 10시 대웅전에서 동지법회 및 송년불교음악 토크쇼 '보현행원송 대담'을 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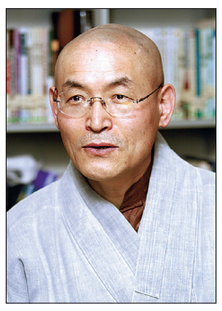
이번 행사는 동지 맞이 법회와 더불어 특별한 대담으로 진행된다. 대담의 주제는 교성곡 '보현행원송'이다. 교성곡 보현행원송은 불교 대중화와 생활화에 앞장섰던 광덕 스님이 〈화엄경〉의 〈보현행원품〉을 시로 옮기고 작곡가 박범훈이 곡을 붙인 것이다. 국악과 합창, 독창, 안무가 어우러진 불교 교성곡으로 1992년 4월 2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초연되어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번 송년불교음악 토크쇼 '보현행원송 대담'은 광덕 스님의 '보현행원송' 초연을 이끌었던 주역들이 모이는 자리다. 작곡과 연습, 행사준비 등 보현행원송의 탄생 과정과 공연 당시를 회고하는 대담이다. 27년 만의 뒤풀이인 셈이다.

사이사이 작곡가의 설명을 곁들여 보현행원송을 감상한다. '보현행원송'을 작곡하고 공연에서 직접 지휘한 박범훈 작곡가와 극단 미추 대표인 연출가 손진책, 디딤무용단 대표인 무용가 국수호, 행사 진행을 총괄한 송암 스님 등이 모여 허심탄회하게 지난날을 회고하며 대담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당시 공연에 참여했던 500여 명의 합창단원, 두 손을 움켜쥐고 목이 터져라 "보리 이루리"를 외쳤던 관객들, 표를 구하지 못해 안타까워했던 불자 등, 인연 있는 모든 대중이 오랜만에 자리를 같이 한다. 절기로 동지인 이 날은 동지불공과 동지법회 후 대중이 둘러앉아 팥죽을 함께 공양한다.

박재완 기자


광덕 스님


송암 스님


박범훈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Buddha Book



지면에 진열된 상품들은 붓다북에서
미니불상으로
검색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www.buddhabook.co.kr

서울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동일하이빌 지하 1층 (주) 운주사 Tel. 02-953-7181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764-2159 | 010-5264-3906
경 기 도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계좌번호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대한명인 제 14-406호
대고제작
www.yangiikukak.com